

로터스갤러리 확장개관 조진호 초대전

운주사 천불천탑 소재 판화 60점·회화 17점 전시

‘관, 세상을 바라보다’ 주제 작가적 시선 담담히 표현

무각사(주지 청학) 로터스갤러리가 전시공간을 확장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품격 있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났다.

기존 1층 갤러리에서 지하 1층 110여 평을 확장하고 그 첫 전시로 조진호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의 ‘관(觀), 세상을 바라보다’ 전을 선보인다.

3일 전시 시작과 함께 만난 조 전 관장은 “3년 8개월간 시립미술관장을 지내고 나서 이제 편히 쉬 줄 알았는데, 전시를 준비하며 하루도 맘 편히 쉬지 못했다. 평생 이렇게 열심히 작품을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웃었다.

화실에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 전 관장은 이번 전시에서 지역의 대표적 문화자산인 운주사의 천불천탑을 소재로 진행한 작품과 그가 평소에 즐겨 해석하던 인물상을 선보인다. 또 해바라기를 주제로 우리의 삶과 생명을 묘사하는 작품도 선보이고 있다.

로터스갤러리 1층엔 운주사 천불천탑을 소재로 작가가 올 하반기 제작한 판화 60점이 걸려 있다. 지하 공간에는 10미터 대작 2점을 포함한 회화작품 17점이 전시됐다.

“무각사에서 전시 제안을 받았을 때 새로운 미션이지만 화두를 만들고 싶었



조진호 작가

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담히 담았습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지난 2008년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진 후 무려 10년 만에 진행되는 광주 전시다. 올해 서울 나우갤러리에서 ‘한국현대미술 판화발굴’을 주제로 판화작품들을 정리해 선보이는 전시를 열었던 작가는 “서울 전시를 통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 작업을 되돌아보고 정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고 털어놨다.

판화에 대한 애정으로 젊은 시절부터 느꼈던 목판화만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음미하고픈 마음에서 다시 칼을 잡은 작가는 지난 5개월간 운명처럼 무려 60점의 목판화를 단숨에 제작했다.



‘관2’



‘관6’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방치됐던 창고같은 공간을 광주비엔날레 파빌리온 프로젝트를 계기로 리모델링해 전시공간을 확장하게 됐다”며 “무각사 문화관이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공간으

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예술인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5일 오후 5시. 전시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연수 기자



12월 대인예술시장 공연팀 광주어린이요들단.

대인예술야시장 한 해 마무리

12월 ‘종이부시’ 주제 8일·22일 열려

대인예술시장 별장프로젝트는 12월 종이부시(終而復始)를 주제로 8일과 22일 예술야시장을 개최한다.

지난 1일에는 인디언 수니의 통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퍼플웨일, 더블루이어즈 등이 참여해 열정적인 무대공연을 선보였다.

오는 8일에는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사업의 일환으로 밴드, 어쿠스틱, 밴드 등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22일에는 광주어린이요들단의 어린이 합창, 몽니블루스의 통기타&재즈, 피모션의 퍼포먼스 등 미리 보는 크리스마스 공연을 진행한다. 본전삼거리 앞에서는 더드림싱어즈가 캐롤 플래시몹 공연으로 2018 별장프로그램의 대미를 장식한다.

옴서감서 체험장에서는 8일 꽃마루의 퓨전판소리, 하루의 보컬, 하인석의 버스킹 무대가 마련된다.

키즈존에서는 22일 겨울아이를 주제로 스트링아트 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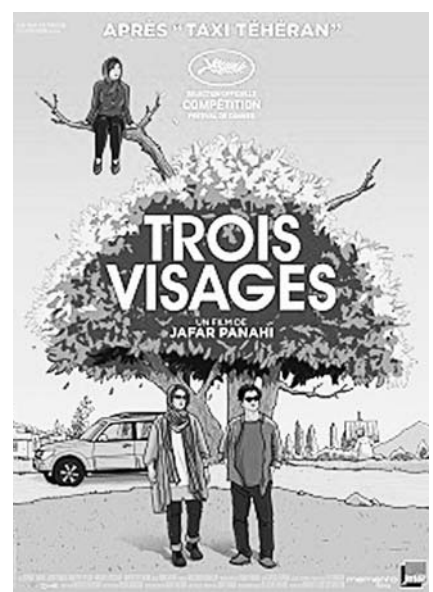
엽서 만들기, 포토존 체험을 진행하며, 극단 도깨비는 육심쟁이 토끼를 주제로 인형극을 선사한다.

한평 갤러리에서는 RESUPORT (result+report)를 주제로 8일부터 22일까지 올해 별장프로젝트에서 진행했던 사업의 활동사진과 홍보물을 보여주는 결과보고전시회를 개최한다.

대인문화장착소 지음에서는 ‘공간과 사유’를 주제로 레지던스 최종결과보고 전시가 8일까지 진행된다.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이담의 작가로 김연호를 선정해 원화 전시 및 작가와의 대화, 아트경매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또한 2018 광주비엔날레 기획특집프로그램 ‘대인 Pick!’ 2개 프로그램을 22일까지 지속한다. ‘백면화상’전은 지역작가 100명의 작품을 실사출력해 대인예술시장 내 아케이드에 전시하고 있으며 아트컬렉션샵 수작에서는 지역 청년작가 15명의 작품을 아트포스터와 엽서로 제작해 판매하는 기획아트상품전 ‘P-art’가 계속된다. /이연수 기자

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 오늘 나주서 팡파르



개막작 자파르 파나히 ‘3개의 얼굴들’ 폐막작 ‘만델라와 동지를 거부한 국가’

‘빛과 평화’를 주제로 2018빛가람국제평화영화제(조직위원장 김성재·유인학)가 5일부터 7일까지 나주혁신도시 한 국전력 한빛홀과 CGV나주에서 열린다.

개막작으로는 2018년 칸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은 이란의 세계적 거장 자파르 파나히 감독의 ‘3개의 얼굴들(Three Faces)’이 선정됐다. 이란의 산간 작은 마을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

한 젊은 여성의 자살 영상을 추적해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 이란 사회의 여성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다.

7일 CGV나주에서 상영되는 폐막작은 프랑스의 니콜라 상포, 질포르트 감독의 다큐영화 ‘만델라와 동지를 거부한 국가’다. 넬슨 만델라와 그의 동료들이 사형선고를 받은 1963년 재판을 배경으로 남아프리카의 민주화를 염원하던 넬슨 만델라의 육성이 담긴 다큐영화다. /이연수 기자

이번 영화제의 하이라이트인 김대중 노벨평화영화상 수상자로는 추상미 감독이 선정됐다. 추 감독은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에서 이념과 사상, 국적을 뛰어넘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국 전쟁이 남긴 아픈 상처를 사랑으로 품었던 위대한 실화를 통해 잊지 못할 감동을 전한다.

심사를 맡은 김성재 심사위원장은 실력파 배우에서 차세대 여성감독으로 변신한 만능 아티스트 추상미 감독에 대해 “한국 현대사에 이슈를 제기하고 전쟁의 상처를 사랑으로 승화한 평화에 대한 기원이 담긴 작품”으로 평가했다. /이연수 기자

‘뽀뽀왈왈’ 과 연말을 재미있게

퓨전국악밴드 ‘뽀뽀와아이들’, 11일 광산문화예회관

캐주얼 국악밴드 ‘뽀뽀와아이들’이 11일 저녁 광산문화예회관에서 퓨전국악 콘서트 ‘뽀뽀왈왈(뽀뽀)’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광산구가 청년예술인과 광산문화예회관 무대를 나누는 ‘화요문화산책’의 올해 마지막 공연이다.

뽀뽀와아이들은 판소리·해금·피리·피아노·퍼커션으로 이뤄진 소규모 국악밴드다.

팀의 대표 겸 해금 연주자인 이예찬 씨의 어린 시절 별명을 팀명으로 삼아 친근하고 재미있는 국악 공연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공연에서 뽀뽀와 아이들은 ‘뽀뽀춤’, ‘바나나’, ‘곰일랑 만나지려나’, ‘즉흥 시나위’ 등 자작곡으로 무대를 꾸민다.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광산문화예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서 사전 신청 받고 있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062-960-8253)에서 한다.

광산구는 ‘화요문화산책’ 공모로 올해 6개 단체에게 공연장을 무료로 빌려주고, 출연료·홍보물 제작도 지원했다. ‘2019 화요문화산책’은 내년 초 참여단체 모집 공모를 시작으로 계속된다. /이연수 기자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공유지분, 300평
 - 대학교수, 건설회사,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됨(산64-21번지)
 - 매매 - 5100만원 (일시불 조정가)
- 문의. 010-6834-7400

